

저자 (Authors)	최정선
출처 (Source)	한국여성철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 2008.4, 3-9(7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여성철학회 Korean Association Of Feminist Philosophers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016521
APA Style	최정선 (2008). 고대 불교와 여성. 한국여성철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3-9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9/07 16:17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고대 불교와 여성

: 『삼국유사』와 『일본영이기』 설화를 중심으로

최정선 (연세대학교)

— 목 차 —

1. 서론
2. 조건없는 자기헌신과 投棄의 딸
3. 구원과 해결자로서의 어머니
4. 유혹의 여성과 自性의 부인
5. 결론

1. 서론

불교를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여성의 의미를 재해석하려는 시도는 불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중생은 평등하다(一體衆生皆有佛性)는 대전제로부터 시작한다. 하지만 여성이 남성과 평등하다는 주장은 여전히 논쟁적이다. 불교의 대승 정신에 어긋나는 여성오장설이나 삼중설은 협소하고 경직된 가부장제의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역동적이고 포용적인 시각에서 불교의 성별관을 파악해야 한다든가 사회 문화적 배경과 결부된 남성우월론의 맥락에서 해석된 것이라는 비판적 견해가 꾸준히 제기되었다.¹⁾ 또한 여성주의 불교와 수행, 그들의 삶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젠더의 시각으로 불교를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²⁾ 남성중심적 사유구조와 지배체제 내에서 왜곡된 여성의 위치를 지적하고 여성의 의미를 재해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반면 고대 불교 문학에서 여성이 드러나는 방식과 의미를 규명하는 연구는 미미한 수준이다. 관음설화의 여성 의미를 검토하거나 『삼국유사』에 나타난 여성상을 분류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불교학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불교 문학 텍스트 내에서 여성의 의미구현과 재해석이 시도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삼국유사』를 대상으로 하고 여성의 존재양상을 어머니, 아내와 딸로 분류하여 여성의 존재 의미와 역할을 불교적 맥락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삼국유사』는 제도권, 기득권의 시각을 벗어나 속인들의 소박한 신앙과 기층민의 불교 수용의 관점에서 수록된 이야기라는 점에서 여성 문제를 논하기에 적절하다.³⁾ 때문에 불교가 남성우월적, 가부장적이라

1) 구자상(『大乘佛典에 나타난 女性成佛論』 『韓國佛敎學』 48집, 2006)은 모든 현상적인 것에는 고정적인 실체가 없다 보는 空사상으로 五障, 변성남자를 해석하여 남녀의 평등을 주장하였다. 이수창은 (『佛敎의 女性成佛論에 대한 檢討』, 『한국불교학』 48집, 2006) 불교문헌에 나타난 여성에 관한 교설을 단편적으로 파악하거나 오늘날의 시각과 갖대로 판단함으로써 오해를 가중시켰다고 했다.

2) 조승미(『불교수행론과 젠더문제』, 『불교학연구』 8호, 2004), 백경임(『초기불교시대의 여성재가불자의 수행생활』, 『현대여성불자의 수행과 삶』, 2003), 안옥선(『초기 경전에 나타난 여성 성불불가설의 반불교성 고찰』 『철학연구』 68, 1998), 김은희(『불교에서 보는 여성관』, 『불교와 문화』 18, 2001), 하정남(『불교와 페미니즘, 공존 가능한가』, 『불교학연구』 2집, 2001)의 논문들이 있다.

3) 고대 삼국의 불교설화집 부전은 문학 연구의 결핍들이다. 『삼국유사』는 관찬사서, 유교정치이념을 토대로 하는 남성편향적, 제도권의 역사기록이 아니라는 점에서 논의의 가치가 있다.

는 비판적 시각에 대한 균형감을 회복하고 민중을 외면한 왕실불교와 상층 여성 중심의 편향적 시각이라는 비판도 보완할 수 있다. 『삼국유사』의 불교관련 여성을 어머니, 아내, 딸로 분류하고자 하는 것은 여성의 정체성을 성장과 더불어 사회 속에서 부여하는 일반적 분류 방식일 뿐만 아니라 여성이 남성과의 관계망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또한 三從說⁴⁾의 불교 교설에 나타나듯 여성은 딸, 아내, 어머니의 위상으로 표현되며 각각의 처지에서 요청되는 處身의 德이 있었다. 여성의 정체성을 불교 내적 문법으로 풀어 내어 불교적 공간에서 여성성이 해체되거나 혹은 의미부여되는 양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한국 고대 불교설화가 표징하고 있는 여성상의 특색을 명징화하기 위해 『日本靈異記』⁵⁾ 설화와 비교하고자 한다. 전해지는 불교설화 자료가 많지 않은 연구대상의 부족을 보완하고 고대 불교와 여성의 독자성을 드러내기 위해 비교문학적 방법은 유용하다. 특히 『일본영이기』에는 민중의 생활상이 생동감 있게 반영되어 있으며 여성이 중심이 되는 서사가 전체 설화 116화 가운데 53화를 차지하고 있다.⁶⁾ 한·일 양국의 고대 불교가 여성을 의미화하고 규정하는 방식의 차이점에 주목하여 독자성을 추적해보고자 한다.

2. 조건없는 자기헌신과 投棄의 딸

『삼국유사』 설화 가운데 부모를 모시는 딸의 효행을 불교적 시각으로 해석한 이야기는 「선율환생」과 「빈녀양모」가 유일하다. 「선율환생」⁷⁾은 선율이 명부에 갔다 살아 돌아 온 환생담이다. 여기에 명부에서 만난 여인과의 기이한 인연이 보태졌다. 부모를 위해 생명을 희생한 딸은 부처에 귀의하여 속세의 미련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남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찾는다. 또한 자신이 부모의 죄로 인해 명부에 잡혀 온 것으로 인해 부모를 원망하거나 분노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죄업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부모를 걱정한다. 부모가 죄업을 깨닫고 뉘우치기를 바란다. 딸은 원망대신 조화와 화해를 통해 불교적 고향을 간구한다. 불교가 희생된 여성을 포용하는 방식은 속세간의 부모 자식의 연을 초극한 부처님의 자비심이다. 그런데 깨달음의 통로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선율이다. 딸이 직접 부모의 각성을 가능하게 하고 자신의 고뇌로부터 초극하지 못하고 선율을 통해 양자를 이루어 낸다. 딸로서 여성의 한계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삼국유사』 효선에 실린 「貧女養母」는 분황사 동쪽에 사는 젊은 여인이 눈 먼 어머니의 봉양을 위해 자신의 몸을 종으로 판 이야기이다. 한 번 적을 팔아 최하층 신분의 천민인 노비로 전락해 버리면, 양인의 신분을 회복하기란 불가능한 일이었다. 일단 사노비가 되고 나면, 주인의 재산으로 인정되어 상속, 증여, 매매가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사회 외곽의 하층민이자 약자인 여성으로서 어머니를 봉양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인간성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이는 「眞定師孝善雙美」의 진정

4) 힌두사회의 기본성전인 『마누법전』에 규정된 것으로 여인은 어릴 때는 부모에게, 시집가서는 남편에게, 늙어서는 아들에게 복종하여야 한다고 했다.

5) 『日本國現報善惡靈異記』의 약칭으로 藥師寺의 승려 景戒가 찬술한 것으로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불교 설화집이다. 편찬 목적은 민중을 대상으로 포교활동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함이다. 『삼국유사』의 이야기들이 구전, 향유되던 시기(7-9세기)의 불교설화들을 수록하였으며 사도승 경계 역시 민중의 생활과 사고방식에 관심이 많았다는 점에서 『삼국유사』와 유사한 기반을 가지고 있다. (『일본영이기』와 『삼국유사』 관음설화의 비교연구는 줄져 『삼국유사 관음설화와 그 시적 변용에 관한 연구』(-『일본영이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1998, 연세대, 박사학위논문.)에 자세하다.)

6) 高木豊, 『佛教史のなかの女人』, 『日本靈異記女人の風景』, 平凡社, 1988, 170-182쪽

7) 『三國遺事』 卷五 感通, 「善律還生」

이나 「大成孝二世父母」의 김대성처럼 출가와 추선으로 어머니의 왕생을 보장하는 효행과 대조적이다. 남성은 오히려 자신이 불교 안에서 숭고해짐으로써 부모를 함께 높이는 방식의 효를 택한다⁸⁾.

여성은 자신을 철저히 부정하고 온전하게 희생하는 방식으로 부모에게 효를 행하고 남성은 자신의 높은 뜻을 이름으로써 즉 자신의 성취를 통해 부모를 함께 높이는 방식으로 효를 실행하고 있다. 또한 여성은 부모를 깨달음(覺)에 직접 이르도록 하기보다는 타인을 통해 소통하는 중개자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방식의 차이일뿐 궁극적으로 부모를 깨달은 존재로 전환시켜 왕생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깨달은 자는 불교 안에서 모두 평등하기에 방식의 차는 다양할수록 좋다. 다만 여성의 방식이 자기희생적이나 타인에 대한 원망이 없다는 점에서 자비를 강조하는 불교 교설에 더욱 가깝다.

『일본영이기』의 설화가운데 부모와 딸의 관계가 주축을 이루는 이야기는 『삼국유사』에 비해 풍부하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딸이 부모에게 효행을 하여 덕을 칭송받는 것보다 악행을 해서 죄업에 대한 징벌을 받는 이야기가 많다.⁹⁾ 가령, 굶주린 어머니가 어린 딸을 데리고 이미 출가하여 가정을 이루고 있는 딸의 집에 찾아가 밥을 달라고 한다. 그러나 매정한 딸은 밥이 없다는 거짓 핑계를 대어 어머니를 길로 내쫓는다. 이에 벌을 받아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것과 같은 격통을 느끼나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그날 밤 목숨을 잃은¹⁰⁾ 내용의 설화가 있다. 어머니에게 불효한 딸이 즉시 벌을 받음으로써 악업을 경계하는 의미가 강화되었다. 부모의 죄를 자신이 대신 받는 것과 자신의 죄악에 대한 징벌을 그 즉시 받는 것은 차이가 있다. 전자가 대승적 희생이라면 후자는 인과응보에 따른 자업자득이다. 또한 딸과 어머니관계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중심이 되는 설화도 등장한다. 시어머니와 악녀로서의 며느리에 얽힌 이야기는 매우 자극적이다.¹¹⁾ 인간의 절제되지 않은 악한 마음이 비도덕적 행위로 표출되었다. 악업에 대한 징계는 악행을 행한 당사자의 죽음으로 결론난다. 극악한 감정과 비이성적인 인간 감정을 적나라하게 표현했으며 여성(딸 혹은 며느리)을 惡女로 형상화했다. 『영이기』 설화는 대부분 善業을 권장하기보다 惡業을 경계함으로써 因果應報의 교리를 감각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선한 심성의 여성보다는 사악하고 비도덕적 악녀의 형상이 빈번하게 드러난다. 이와 같은 표상화 방식을 선택한 것은 악한 사람이 징벌을 받는 쪽이 선한 사람이 복을 받는 것보다는 강한 인상과 심리적 경각심을 촉발시키기 때문이다. 이야기의 극적 결말과 자극적 응징에 의한 귀결은 불교의 교리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효과적 장치였다.

『삼국유사』가 명징하게 드러내는 딸은 부모를 위해 자신을 投棄할 수 있는 선량한 여성이다. 악녀의 모습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불교가 악업에 대한 즉각적 징벌의 종교이기 전에 궁극적으로 인간 본성을 수양하고 마음공부를 통해 수준 높은 인간애를 확보하는 방편으로 전면화되었다. 또한 여성이 부모의 뜻을 헤아려 살피는 방식은 자기헌신으로 나타난다. 자기헌신은 자아의 부정이며 소멸이라는 점에서 매우 극단적이다. 부모와 딸의 관계에서 부모의 부재는 자신의 소멸과 직결된다. 때문에 여성에게 요구되는 효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흔쾌히 희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했다. 이 때 여성은 원망하거나 분노하지도 않으며 부모가

8) 진정은 불법에 귀의하여 어머니를 극락왕생하게 하였고 김대성은 불국사와 석불사를 세워 전생과 이승의 두 부모에게 효도를 했다.

9) 高木豊, 『佛敎史のなかの女人』, 平凡社, 1988, 129-147쪽.

10) 『日本靈異記』 上卷 24話

11)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며느리가 남편을 시켜 시어머니를 살해하도록 한다. 이에 남편이 어머니를 광야로 이끌어 내어 죽이려 하는 순간 벼락을 맞아 즉사하였다. (『日本靈異記』 中卷 2話)

진정한 구원을 얻기만을 원하는 대자대비한 부처의 모습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여성만이 보여줄 수 있는 숭고함이라고 불교는 역설하고 있다.

3. 구원과 해결자로서의 어머니

어머니로서의 여성에게 요구되는 것은 끝없이 재생되는 모성이었다. 모성은 사회유지를 위해 여성에게 부가된 책임의식이다. 찬미된 모성은 여성이 강제 혹은 억압을 느낄 틈을 주지 않고 여성의 본성으로 치환된다. 때문에 여성에게 결핍된 모성은 인간성의 왜곡과 동일시되고 모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자식의 상승이 두드러져 여성은 찬탄의 대상이 되는 연계를 리를 가진다.

『삼국유사』 불교설화에는 다양한 어머니들이 등장한다. 모성은 자식을 불법의 세계에 귀의하도록 견인하는 대승적 모성의 실천과 현실 삶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 문제해결자로서의 적극성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다양성을 관통하는 일관성은 이들 어머니들이 지혜와 결단력의 소유자이며 실천자들이라는 점이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통도 감내하는 어머니는 불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여성상이다. 불교 안에서 여성은 자신의 안위보다는 자식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한다. 회명의 어머니는 자식의 개안을 위해 기도하고¹²⁾, 보개의 어머니는 민장사 관음전에 나아가 자식이 무사귀환¹³⁾을 위해 기도한다. 자식에게 구복의 공양을 받기보다는 더 큰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함으로써 자식을 성장시키는 어머니는 진정사, 사복의 어머니이다.

『일본영이기』에 나타난 모성은 실제적이며 본능적이고 육감적이다. 희생하는 어머니와 음란한 어머니가 공존한다. 모성의 관점에서 해석된 자비의 어머니와 생물학적 여성의 입장에서 육욕을 견디지 못하는 충동적 여자의 모습이다. 우선 자비와 희생의 어머니는 아들의 군역 복무에 함께 따라가 아들을 보살핀다. 그리고 자신을 살해할 악한 마음을 가졌던 아들을 위해 독경을 하고 추선공양을 하며 오히려 아들의 죄업을 멸하려는 자비심을 보였다.¹⁴⁾ 전생에 아들의 물건을 훔쳐 사용한 죄로 인해 현생에 아들의 소(牝牛)로 환생하여 아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어머니도 있다. 아들은 어머니를 위해 불교적 공덕을 행해 어머니와 자신을 위한 선업을 쌓게 되었다.¹⁵⁾ 어머니가 소로 환생했다는 점에서 <사복불언>과 유사하다. 다만 사복의 어머니가 아들을 연화장으로 직접 인도한데 반해 현세에서 공덕을 쌓도록 유도했다. 실천가능한 불법정진의 방법을 제시하므로 지극히 현실적이다.

『일본영이기』 설화 가운데 성적 욕망을 조절하지 못하는 어머니는 음란하나 지극히 인간적이기도 하다. 음란한 어머니가 전생의 죄로 인해 현세에서 고통을 받았다. 포육의 의무를 저버리고 성 욕망에 충실했던 어머니는 여성이자 어머니의 상징인 젖가슴이 부어오르는 고통을 겪는다. 불교에서 보면 여인은 不邪淫戒를 범했다. 그러나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은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대하다. 여인은 남편 없이 혼자 사는 과부였기 때문에 多情多淫한 생활이 문제시되지 않았던 듯하다.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할 의무가 있듯이 어머니도 아이에

12) 『三國遺事』 卷三 塔像 「芬皇寺千手大悲盲兒得眼」

13) 『三國遺事』 卷三 塔像 「敏藏寺」

14) 『日本靈異記』 中卷 3話. 防人에 지명되어 3년근무를 하게 된 아들을 따라 어머니가 임지에 갔다. 아들은 보인이 그리운 마음에 어머니를 살해하여 免役을 얻은 후 고향에 돌아가 아내를 만날 계교를 꾸며다. 어머니를 산 속으로 유인해 죽이려는 순간 땅이 갈라지며 아들이 떨어져 죽었다.

15) 『日本靈異記』 中卷 15話

게 젓을 먹여 양육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 했기에 징벌을 받았다. 육체적 욕망에 이끌렸던 어머니의 징벌은 즉각적이고 감각적이다. 어머니의 욕정이 부정적으로 문제화되었지만 어머니이기 이전에 여성으로의 본능을 대상화했다는 점에서 실제적이다. 또한 과부의 음란함을 비난하지 않고 자녀양육의 불성실함을 전면화함으로써 모성의 문제에만 집중하였다.

모성이 강조된 불교설화는 모성이 발현되는 대상이 주로 아들이라는 점에서 특수하다. 보개의 어머니는 매우 가난하여 아들만을 의지하며 살았으며 아들의 귀환을 위해 기도를 했다. 진정의 어머니도 아들에게 출가를 권했으며 사복의 어머니도 아들을 연화장으로 이끌었다. 모성이 아들을 위해 발현되는 것은 가계의 중심이 아들에게 있고 아들로 인해 어머니의 존재감이 증명된다는 일반적 통념과 일치한다. 불교에서 여성은 일반적으로 불결하거나 부정적인 존재로 이해되는데 비해 어머니인 여성은 육체로서의 여성성이 제거된 채 숭고한 구원자로 승화되었다. 어머니의 현실감각은 아들로 인해 더욱 빛나게 되고 가치있는 모성으로 인식되었다. 이는 여성성이 부정되는 자리에 모성이 대치되면서 아들을 위한 모성으로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여성이 자기 존재의 정당성을 구현하는 방식이 아들을 통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여전히 남성중심적이다. 하지만 훌륭한 자식의 근저에는 자식을 뛰어나게 키워낸 어머니의 공덕이 있음을 긍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유효하다.

또한 이들 어머니는 대부분 가난하거나 남편이 없는 여인들이라는 공통항으로 묶인다. 결핍이 크면 클수록 상대적 소외감과 박탈감이 가중된다. 사회와 가정 안에서의 보호벽인 남편의 부재와 경제적 빈곤의 현실은 여성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이다. 따라서 이들 여성들은 불교 공간 안에서 위기를 극복하려 하였다. 자신의 노력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거대 시련 앞에서 여성들은 불법에 호소하였고 불교는 꺾인 삶의 고통 속에서 유일한 희망인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여성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수용하였다. 불교는 고대 사회의 지모신적 모성, 소박한 모성을 유연하게 수용, 모성의 가치를 미화함으로써 민중적 확산을 도모하였다.

4. 유혹의 여성과 自性의 부인

아내로서의 여성은 <광덕엄장> <조신몽> 그리고 <김현감호>에서 불교적으로 형상화되었다. 이들 아내는 현실감이 뛰어나고 적극적이기에 남편의 긍정적 변화를 견인하는 힘이 되고 있다. 그런데 아내로서의 여성은 성적 대상으로서의 유혹자 본능과 육체성이 전면적으로 부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특별하다. 여성을 육육의 대상으로 보는 속세간의 눈을 벗고 무차별, 무분별의 지혜를 가질 때 비로소 진정한 인식의 각성을 이루게 된다. 불교에서는 여성의 몸을 빌려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과 같이 여성의 몸으로부터의 유혹을 넘어설 때 비로소 인식적 탄생을 가능하다 했다. 따라서 여성의 육체 자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유혹의 대상으로 파악하는 인식의 아둔함으로부터 벗어나야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이 때 여성은 인식적 탄생을 가능하게 하는 도화선이다. 육체와 정신을 공유하는 부부 시간이기 때문에 육체의 미망에서 벗어나 覺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남편이 사회적 지위와 존경을 확보하고 불교적으로 좀 더 높아지기 위해서 부인은 자신의 육체성을 소거하여야 했던 것이다.

『일본영이기』설화 가운데 아내로서의 여성의 역할은 어머니에 비하면 매우 미미하다. 아내는 남편의 사후 아미타 畫像을 그려 남편을 추모하고 법회를 운영하였다¹⁶⁾. 남편의 사후,

아내는 아미타 불상을 만들기로 뜻을 세워 매 가을 낱알을 모아 자금을 마련하였다. 아내의 정성으로 만들어진 아미타 화상은 본당의 화재에도 손실이 되지 않았으니 여인의 깊은 불심을 알 수 있다 했다. 下卷의 7話는 관음목상에 얽힌 기적담이다. 아내는 武人으로 오지에 적을 토벌하러 간 남편을 위해 관음목상을 造成하여 일심으로 부처를 공경하고 공양하였다. 아내의 공덕수행으로 인해 남편을 두 번이나 죽음의 위기로부터 구제해냈다.

아내로서의 여성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도반으로서의 현명함과 견인력이다. 여성은 남성이 큰 뜻을 이루어 인생의 질적 전환이 가능한 변화를 일구어낸다. 방법론적 지혜를 내고 문제 해법을 모색하는 해결자이다. 그런데 여성은 남성을 견인하는 지혜와 예지의 인물이지만 속세간의 평범한 여성이 아니라 自性佛性의 여성 현신이었을 뿐이다. 때문에 설화 속 여성은 관음의 화신이거나 호랑이, 꿈 속의 여인으로 탈색되었다. 깨닫지 못한 남성을 覺의 세계로 이끄는 것이 부인에게 요구되는 덕목이었으나 이것은 매우 특수한 위치의 부인에게나 가능한 것이었으니 이 역시 남성위주의 남녀관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편협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5. 결론

『삼국유사』 불교설화에는 다양한 여성 군상이 등장한다. 이들 여성은 어머니, 아내, 딸로서 역동성을 드러낸다. 딸로서의 여성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조건 없는 희생의 효녀로 형상화되었다. 아들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고 출가함으로써 부모의 왕생을 도모하는데 반해 딸은 자신의 목숨과 신분을 과감하게 낮춤으로써 부모의 생을 대신 구한다. 이는 아들의 출가는 깨달음을 얻기 위한 도정으로 정당화될 수 있음에 반해 딸은 부모의 구양을 뒤로하고 출가할 수 없었던 사회적 통념과 관계된다. 또한 딸의 이상화된 모습도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권력구도 속에서 재편되어 여성의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숭고한 희생과 자비심을 강화함으로써 여성적 덕목을 긍정하였음은 부정할 수 없다.

어머니로서의 여성은 자비와 희생의 모습으로 구현된다. 덧붙여 자애로움과 희생이 유약함과 짝을 이루기보다 강인함과 과단성있는 결행력으로 실현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모성중심에 충격을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아내로서의 여성은 다층적이다. 현명한 아내로서의 지도자상과 유혹하는 여성으로서의 요부상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상화되는 것은 여성으로서의 육체성을 제거한 정신적 지지자로서의 아내이다. 불교수행을 보좌하는 수호신으로서의 아내상은 원시 모계사회의 여신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직면한 고난을 해결해주고 남편의 궁극적 목표인 불교수행의 큰 뜻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역할은 궁극적으로 이상화된 관음의 현세적 구현으로 귀결된다. 남편과 동등하거나 적어도 높은 위치에서 정신적 각성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아내의 형상은 부처와 닮아 있다. 이는 여성이 높아진 것을 의도적으로 합리화하기 위한 문학적 방편일뿐 실제 여성의 지위가 남성과 동등하거나 우월했던 것은 아니라 생각된다. 다만 문학공간에서 여성이 현명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형상화된 것은 새로운 여성상의 발견이기에 주목할만하다.

16) 『日本靈異記』 上卷33話.

반면 『일본영이기』 불교 설화에는 선하고 이성적인 여성보다는 악하고 감정적인 여성이 우세하다. 이는 부분적으로 改惡修善의 주제 구현 방식과 여성을 우월하거나 혹은 초월적 지위로 격상시킬 수 없었던 당대 사회상의 반영이다. 특이한 것은 모성과 더불어 육체적 욕망에 담금질당해 시련을 겪는 여성으로서의 어머니 형상이다. 이는 여성이 유혹의 육체를 가졌으며 동시에 유혹에 약한 인간적 존재임을 상징한다. 하지만, 본능적 나약함을 극복하고 위대한 모성으로 환원될 때 비로서 어머니일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아내로서 여성은 성적인 유혹자의 모습보다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조용히 보조하는 역할, 즉 내조자의 충실한 전형으로 설정되었다.

불교는 사회적인 관습으로 인한 역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여성들에게 불교의 공간을 통해 다양한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여성의 역할 범위를 확장해 주었다. 또한 사회의 외곽에 경계인으로 존재했던 노비, 과부까지 위대한 모성과 불성의 소유자로 격상시키며 여성의 잠재력을 드러낸 것은 뜻 깊은 전환이었다. 기존의 강고한 여성의 틀을 해체하지 않으면서 잠재된 여성의 역량을 견인, 창조된 여성상을 긍정적으로 제시한 것은 분명 불교가 보여준 사회화력이며 잠식력이다.